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한다. 한편 교회에서는 예수가 나(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음으로 내(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예수가 고난을 받거나 혹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 예수가 자연사 했다든지 아니면 오늘날과 같이 전기의자에 의한 사형집행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히 9:22)는 구절을 함부로 들이밀지 말자. 히브리서는 마가복음과는 문학적으로 전혀 다른 장르일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한참 뒤에 들어온 생각이다.

굳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까지 받아야 하나? 참수형처럼 최소한의 고통으로 단번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가? 고문과 피 흘림은 구원의 논리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일이다. 유대전통에서 코셔(Kosher) 식품을 말하는 이유가 인간을 위해 죽는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다. 하물며 온 인류를 위한 예수의 죽음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가해야 하나? 십자가형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미개한 문화와 옛 시대의 유물이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로 로마 시민들의 몸에서 사라질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눈과 귀로부터도 멀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과거 중국과 한국에서 행해진 능지처참처럼 이런 참형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지도 말라는 말이다. 십자가 처형이란 보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공포심을 일으켜 감히 로마제국에 맞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끔찍한 제도였다. 목적이 사형에 있다기 보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고문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있었다.

이 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그 신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는 종교재판 후에 또 한 번의 재판을 받는데, 로마의 지배 하에서 종교법으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15:2, 9, 18, 22)이라는 점이 로마인들의 비아냥거림을 넘어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수는 정치범으로 제거 당했다. 따라서 이것이 주는 신학적 의미는 단순한 속죄제물을 넘어 거대한 지배체제와의 싸움이다.

종교재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자체적 통치기관이다(8:31; 11:27; 14:43, 53). 예수는 이미 마가복음 초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된 상태다(3:6). 판결, 곧 사형은 내려진 상태(3:6; 14:1)에서 그들은 단지 이를 집행할 적절한 죄목이 필요했다. 당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는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은 예수를 일반 법정에서 고소하기 위한 예심(豫審, preliminary hearing) 역할을 했다.

종교재판에서 두세 명의 증인(민 35:30; 신 17:6; 19:15)을 세우는 이유는 한 사람의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해서다(출 20:16; 신 5:20).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고소하는 것이 효력을 잃게 마련이다(신 19:16-19; 수잔나와 두 장로들 이야기). 요 2:19-22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붕괴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십자가 처형이 신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곧 예수는 자신의 몸(성전)을 삼 일 만에 일으킨다고 해석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주장을 거짓 증인의 말로 돌린다(14:57-58; 15:29).

예수에게 씌운 죄목은 신성모독죄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다(레 24:10-16). 하지만 신성모독죄가 로마제국의 형사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는 그에 합당한 죄목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한 ‘그리스도’ 이해다.

대제사장이 묻는다: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14:61). 예수의 대답이 묘하다. 나다!(ἐγώ εἰμι, I am)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 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나다’(6:50)라고 말했고, 또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13:6).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쓰이는 이 표현(ἐγώ εἰμι, 24 번)은 출애굽기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스스로를 이룬 말이다(출 3:14).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말은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이 된다. 네가 그리스도냐? I AM. 나는 나일 뿐이다. 예수를 책잡으려는 질문에 말려들지 않는 모습이다. 내가 그다(I am he; 참조 요 18:6)!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쳐도 역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고대 헬라이어 사본이 물음표 없이 쓰였기 때문에, 내가?(Am I?)와 같이 반문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질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마태복음은 내가 그렇게 말할 뿐, 예수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마 26:64). 눅 22:67-68 역시 질문에 대해 직접 응답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대답을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한 듯 하다. 또 개역한글의 번역처럼 ‘그렇다’라고 읽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이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나 서기관들의 이해가 예수의 그것과 다름을 보았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닌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름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모습이다. 곧 참 사람 예수다.

‘권능자 우편’이란 표현에서 하느님의 이름 부르기를 꺼리는 관습을 본다(14:62; 참조 12:36; 시 110:1). 여기서 하늘 구름과 함께 온다는 표현 역시 다니엘의 이상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한다(단 7:13; 막 13:26). 하늘 영광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그린다. 그 이상을 증거하는 대제사장들인 “너희들”(막 14:62)은 앞서 마지막 때에 말한 “사람들”(막 13:26)이고 “그를 찌른 자들”(계 1:7)과 함께 취급되며 모두가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다. 다니엘의 이상이 후대에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되어 재해석되고 있음을 여실히 본다. 여기서 초점은 예수가 혐의를 벗고 대적자들에게 오히려 죄를 묻는 장면이다(시 110:1). 다니엘의 이상이 암시하는 것처럼 현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 대제사장은 예수에게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묻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말을 써 대답한다. 이렇게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이 할 뿐 아니라, 예수의 대답이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의미는 세상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이해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의 대답에서 말꼬리를 잡아 그를 정치범으로 고소할 충분한 빌미를 얻은 셈이다.

형사재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미 말한 대로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은 로마 형사법상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 신성모독죄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질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의미, 곧 내란죄를 찾고자 피한 것이다. 종교 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빌라도의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피한다. 어차피 예수를 책잡을 빌미를 위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종교재판과 마찬가지로 많은 허위 진술에 예수는 묵비권 행사를 한다. 네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14:60; 15:4-5). 또 대답을 할지라도 고소(죄목)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개역한글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다. 만일 이처럼 해석해야 한다면,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또 다른 증거를 대려고 여러 가지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15:3). 그 자체로 충분한 반역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예수가 한 말은 다분히 부정의 의미다: “네가 하는 말이다”(You say so; σὺ λέγεις).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대제사장에게 대답한 것과 같은 이치다. 곧

네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마치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을 안기부에 잡아 놓고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것을 연상케 한다.

종교재판에서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의 대답이 무엇이었던지, 그것은 서기관들과 못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왕된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는 다스리기 보다는 섬기는 그리스도를 말했고(9:41),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리스도와는 다른 이해다. 그렇지만, 종교지도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의미로 임의로 해석하고 고소한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기존의 신학과 가치관에서는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마가복음 신학에서는 다른 말이다. 예수는 그런 연결고리를 배제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다. 당연히 예수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지 않았다.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은(15:27), 예수가 정치적 반역자로 법정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강도란 요세푸스의 말처럼 반 로마체제에서 투쟁한 사람들이다. 예수 대신에 놓임을 받은 바라바 역시 내란죄로 잡혔으니 정치적 반역임을 암시한다. 물론 지배자들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이것이 예수의 죽음과 맞물려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고 십자가가 주는 거친 메시지다.

신학적 의의

제자들, 유대지도자, 군중들 그리고 정치가(빌라도)—모두가 예수를 버렸다. 마가복음의 주인공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의 마지막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몇몇 이방인과 여인들만 있을 뿐이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예수의 좌우에 앉기를 희망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도망가고 강도 둘이 예수의 좌우에 매달려 최후를 같이 한다. 이렇게 열 두 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로서 변화산 체험에 동참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두 예수를 등지고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강도 둘이 대신 들어선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더욱 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이처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저자의 문학적 재치가 돋보이는 장면이다.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아 너 뭐하고 있느냐?

십자가 처형은 전혀 반가운 것이 아니다. 시편 22편은 고통 중에 구원을 호소하는 시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 시편 22편을 인용하는 장면이 세 번 나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나누고(시 22:18; 막 15:24),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시 22:7; 막 15:29), 마침내 예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친다(시 22:1; 막 15:34). 마지막 구절은 아람어로 쓰였다. 아람어를 모르는 군중들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렇다면 이 기록들은 일반 군중들을 위한 말이 아니다. 성서의 전통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14:21) 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성서와 전통 속에서 혹은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시편 22편을 통해 예수—물론 마가 공동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버림 받은 것이 아니라 성서에 쓰인 대로, 곧 하느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한다. 예수의 삶에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완성이다.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님은 십자가 처형 이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증거된다. 하늘이 어두워 지고, 성소 휘장이 찢긴다. 하늘이 어두워 지는 것은 마지막 때—곧 이 세상(통치)의 끝—에 일어나는 현상이다(을 2:10, 31; 3:15; 암 8:9; 막 13:24). 새로운 세상이 도래함을 알리는 징조다. 예수가

종교재판과 형사재판을 연이어 받고 사형당함으로 해서 일견 지배체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관련된 사람이 예수의 의로움을 증거한다. 십자가 처형을 지키던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다”고 외친다(15:39).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장사 지낸다(15:43).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에게 보이는 보기 드문 호의다. 자신들이 무지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수가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린다(15:37-38).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뜰로 나뉘어져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출 26:33), 성소와 성막뜰(출 26:37)은 각각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둘 중 어느 것을 의미하든, 휘장이 찢어졌다 함은 경계선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또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현현을 의미한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하늘이 갈라지고(1:10)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하늘과 성소는 모두 하느님의 처소로서 경외의 대상이다. 성서 전통에서 하느님의 현현은 하느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 예수의 정의로움을 드러낸다. 성소휘장이 찢어짐은 대제사장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부터 성전체제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성전체제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했다. 십자가는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에게 던져진 불편한 운명이다. 문자적으로 십자가는 없으면 좋을 것이다. 아무리 미사려구로 포장한다 해도 고통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우리는 십자가 형벌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운명적 저항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눈에 실패로 끝난 예수의 삶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이해될 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제자도의 완성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는 제자들이 따를 차례다.

생각해 보기

1.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중 나는 어디에 속할까? 제자들, 대제사장과 공회원, 군중, 빌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바라바와 강도들, 군병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 오늘날 ‘십자가’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네게 주어진 (내가 지는) 십자가는?